

하늘이 성큼 높아졌다. 그렇게도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노란 햇살에 오곡이 영글고, 황금들녘이 풍요로움으로 가득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 말하던 외국에서 오래 살다온 친구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정말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산과 물이 맑고 사계절 아름다움을 선명히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신명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화합하여 국난을 물리치는 협동심이 돋보이는 민족성과 훌륭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문화를 인간의 정신활동의 산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전통적인 행동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화의 개념과 정의는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세계에 자랑거리가 되는 한글, 신라의 석굴암, 다보탑, 팔만대장경, 경복궁, 등등의 귀한 유형의 문화재와, 전통을 이어 가이할 훌륭한 무형 문화유산도 많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

문화재를 빼앗기고 화재로 손실당한 아픔도 있지만, 값진 문화를 창출하는 창의성과 내적인 저력은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 한 예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류의 열풍이다. 드라마, 스포츠에 이어 ‘아이돌 그룹’의 아름다운 외모와 춤, 음악성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동남아, 미국, 유럽에 이어, 러시아, 중남미, 라틴댄스의 본고장인 아르헨티나까지도 k-pop 경연대회를 가지며 한류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 참 대단하다.

k-pop은 한류라는 바람을 일으키며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k-pop을 배우려고 앞 다투어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마다 한국어학과가 인기가 높다고 하니 문화외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된다.

한류의 열풍은 대견한 우리 젊은이들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해외 근로자들의 성실하게 흘린 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이미지와 신뢰성 또한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다.

최근 지방마다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그 지역의 맥을 잇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지역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각 지방의 특색이 담긴 지역문화를 발굴하여 장려하는 일은 문화유산의 보전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 고성군도 9월 22일 제 29회 ‘수성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여름내 긴 장맛비 속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잠시 잊고 문화제가 열리는 마당으로 나와 한마음이 되어 만남

의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모두가 우리가 가꾸고 후대에 남겨야할 문화유산이 되고, 그 힘들이 모여져 새로운 비전을 꿈꾸기 때문이다.

고성군민들의 마음에 푸른 희망의 물줄기를 안겨 주는 행사가 되길 기원하며, 부족하나마 축하의 마음을 담아 시 한 편을 읊조린다.

해마다 이맘 때쯤
가을바람이 향로봉 계곡에서
밭이랑을 타고 들녘을 찾아올 때
동해의 푸른 물줄기 가슴에 안고
수성문화제가 닦을 올리네

남 녀 노 소
얼굴에 그늘져 있는
피곤한 삶의 그림자를 지우고
햇살 가득 받아 안는 이 날
거리마다 군민들의
힘찬 맥박소리 들려오네

장맛비에 얼룩진 가슴 활짝 열고
화합의 북을 울려라!
번영의 나팔을 불어라!
수성문화제 열리는 거리 한 칸에서
그리운 이들과 마주 앉아
이 땅을 푸르게 가꾸어 갈
정겨운 이야기라도 나누세나!
형제여, 누이여!

가을 하늘이 파란 이유

하늘이 파란 이유는 지구의 대기가 태양 빛 중에서 단파장인 푸른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이다. 태양 빛은 여러 파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시광선이다. 가시광선은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로 나누게 되는데,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대기는 파장이 짧은 푸른색의 빛들을 많이 산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눈에는 푸른색이 비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태양이 수평선 방향에 있다면 더욱 많은 대기들을 지나야만 우리 눈에 도달할 수 있다.

푸른색의 단파장들은 산란되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고 붉은 계열의 장파장들이 우리의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녁 하늘의 노을은 붉고 노란 계열로 보이는 것이다.

대체로 10월에 접어들면 강수량이 적어지고 공기 중의 습도가 낮아져 맑고 상쾌한 날씨가 계속된다. 가을에는 태양의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땅의 기온이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 따라서 공기의 운동이 여름보다 약하여 강한 바람이 없

고,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비에 쉽게 씻겨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더 깨끗하다.

또한 사람의 눈은 파란색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여 보라색의 산란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으로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을하늘은 특히 더 높고 푸르게 보인다. 이른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것이다.

(속초기상대 제공)

산림조합 녹색금융, 숲처럼 자라다



조합원 가입방법

- 자격 : 산림 소유자 또는 임업인, 1구좌 이상 출자(1구좌 5천원)
- 가입방법 : 주소지 또는 산림 소재지 조합에 가입

조합원 가입혜택

- 의결권 : 선거권 등을 통하여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
- 나무심기,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지원
-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 이자소득세 면제

상호금융 안내

- 수신상품 :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정기적금, 정기예탁금(비과세) 등
 - 여신상품 : 일반대출, 적금대출, 예탁금대출, 일일상환대출 등
 - 취급업무 : 온라인 송금·수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MS, 지로 등
- 2009년 금융결제원 참가 및 차세대시스템 구축 완료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9월 22~24일, 고성종합운동장 일원

고성군 산림조합